



## 박동국 유미경 선교사

392543 Tambovskaya obl. Tambovski raion g. Krytyie UL. Iygavaya 38. Russia.

Tel: 001(002)-7-960-658-4268(러시아) 070-8227-1204(한국직통)

E-mail: dk-prince@hanmail.net(박동국 선교사) ru-yoomk@hanmail.net(유미경 선교사)

후원 및 저퍼 선교사 훈련 상담: 한국 사무실 Tel.02-443-0883, 미주 사무실 Tel.1-714-9191

미르 뵘(Мир Вам: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설날이 지났습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동안 저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 ‘오브닌스크 하나 장로교회’ 설립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오브닌스크’ 라는 도시입니다. 모스크바 장로교회(이하 모장교회)에서 작년 1월 말 시작으로 매 주일 목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번갈아 가며 오브닌스크를 방문하여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섬기던 중, 박선교사에게 그곳 사역을 맡아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12월 초, 그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약 2달 정도 교회를 섬기다가 드디어 2013년 1월 27일 주일, 저희 교회 성도와 외부 손님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 설립 예배 관경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특히 두 분의 집사님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믿은 지 3년이 된,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의 대한 사랑에 감사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80%이상이 새로 믿은 초신자입니다. 또 한분은 모장교회 본 성가대 지휘자인데, 그 분은 1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반주와 찬양으로 섬기셨습니다. 딸의 중요한 연주회에도 빠지고 말입니다... 저는 설립 예배 때 그 동안 수고하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섬김이 본 교회(모장교회)에서도 계속되리라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한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빌려 한인들과 고려인과 중앙 아시아인으로 이루어진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선교를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러시아 코스타



13년 코스타 참석자들

러시아 코스타는 매년 1월 말, 3박4일의 일정으로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 타국생활 가운데 방향하기 쉽고 유혹받기 쉬운 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일반인들 포함 190명 정도)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박선교사는 올해도 스템으로 섬기며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젊은 기독교인들이 캠퍼스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길 소망해 봅니다.

## 가족 이야기

11학년인 큰딸 주향인 을 5월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고 6월에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시험을 치루고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대학에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상담을 전공하고 싶어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교육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나이로 중2가 되는 사춘기 서한이는 외모에 점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제 키도 아빠와 비슷하고 신발은 아빠보다 더 큰 것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만큼 자란 큰 아들이 든든합니다,

함빈인 한국 나이로 치면 6학년이 됩니다, 지난 해 여름 한국 방문 때,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 6년 동안 종양의 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함빈이는 여전히 자기 또래에 비해서 작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작다고 놀려서 함빈이는 마음 아파합니다, 함빈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놀림에 의견 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 선교사는 매일 인터넷으로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말씀의 은혜에 폭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선교사는 [오브니스크 하나 장로교회]를 섬기기 위해 매주 토요일 모스크바로 올라가서 화요일 돌아옵니다, 주향이 때문에 현재는 이사를 할 수가 없어 대학입시를 치룬 6월쯤에야 가족이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선교사는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 방문 때 찍은 가족사진

2013년 02월 20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소망하는  
박동국, 유미경, 주향, 서한, 함빈 드림



**이 땅 러시아 오브니스크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1, 새롭게 개척한 오브니스크 하나 장로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 2, 오브니스크 지역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 3, 6월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집 구하는 것, 아이들 전학문제, 영주권 이전 문제, 거주등록 문제, 특히 매달 120만원 정도 드는 주택임대료가 해결 되도록)
- 4, 땀보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 5, 매 주 약 1200km를 오고가며 교회를 섬기는 박선교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치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070-8227-1204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낮 1시 이후부터 통화가 가능합니다. )

카톡도 생겼어요, 박선교사 아이디가 dk6707 이고 유선교사의 아이디는 yoomk67 입니다,